

# 유정한 전기제품

■ 글 / 나경수 편집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교육홍보부 이사

## 소설가 이광수

《무정(無情)》은 이광수(李光洙)의 장편소설인데, 1917년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연재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장편소설이다. 근대문명에 대한 동경, 신교육사상의 고취, 자유연애의 찬양 등이 주제를 이루어 당시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출발을 알리는 선구적인 의의를 지니는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당시 전통이나 관례의 속박에서 벗어나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하는 연애 즉 자유연애(自由戀愛)란 꿈도 못 꿀 때였다.

소설가 이광수는 1892(고종 29)년에 평북 정주(定州)에서 태어나서 1950년 납북되어 그곳에서 죽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 소작농 가정에서 태어나 1905년 도일(渡日)하여 메이지학원(明治學院)을 졸업하고 와세다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이미 위에서 말한 1917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을 매일신보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후 1919년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사장을 역임했고, 1923년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1933년에는 조선일보 부사장을 역임하였다. 그후 1939년에는 친일 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친일행위를 하여 광복 후 반민법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6·25사변 때 납북되었다.

1933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이광수의 장편 소설이 《유정(有情)》이다. 주인공 최석과 남정임의 사제(師弟)·부녀(父女)·이성(異性)의 미묘한 애정관계를 표현하였다. 그래서 이 소설은, 《무정》과 《개척자》를 통해 표명된 이광수의 자유연애론이 플라토닉한 애정관으로 승화된 작품이라고 분석된다.

## 무정(無情)

사전에서는 <무정(無情)하다>를 <인정이나 동정심이 없다> 혹은 <남의 형편에 아랑곳 없다>로 정의하고 있다. 또 <유정(有情)하다>는 <정이 있다>로 비정(非情)하다의 대(對)로 풀이하고 있고, 특히 불교에서는 <유정(有情)을 <마음이 있는 중생>이라 하는데, 작가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무정(無情)은 정이 없거나 인정이나 동정심이 없는 것으로 <매정하다>와 비슷한 의미이다. 불교에서 유정(有情)은 일체의 생류(生類), 즉 모든 정식(情識)이 있는 것을 가리키어 이르는 말이다. 비정(非情)의 유사어로 범어(梵語) 사트바(sattva)의 신역(新譯)이며, 구역(舊譯)에서는 이것을 중생(衆生)이라고 한다.

생류(生類)는 동식물(動植物)의 총칭(總稱)이고, 중생(衆生)은 글자 그대로 많은 생물, 많은 사람들이다. 불교에서는 범(jantu)로 부처의 구제(救濟)

## 전기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며,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레야 뗄 수 없는 생필품이다. 그러므로 가전제품은 가족적이며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의 대상이 되는 인간, 그밖의 일체의 생물을 지칭한다. 곧 지(地)·수(水)·화(火)·풍(風)의 네 가지로 합성된 육체를 가진 모든 물건의 총칭이다.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계를 중생계(衆生界)라 하는데, 이를 다른 말로 삼계(三界), 미계(迷界) 또는 인간계(人間界)라 칭한다.

실로 중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지만, 그 뜻이 명확치 않아 때로는 모호하다. 일단은 세상에 사는 일체의 생물의 뜻이다. 달리 유정(有情)이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로는 불(佛)이나 보살(菩薩)도 포함해서 말하나, 보통은 불이나 보살의 오계(悟界)에 대하여 아직도 현 속세(俗世)에 있는 자라 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초(草)·목(木)·토(土)·석(石)과 같이 정식(情識)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을 지칭한다. 불의 자비, 보살의 보리심(菩提心)은 일체의 중생을 오계(悟界)로 도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한다.

여기서 보리심이란 성불득도(成佛得道)하는 마음, 곧 불교의 구도심(求道心)이다. 불법의 도를 탐구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길을 구하는 것이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

우리가 흔히 전기기기(電氣機器)라 함은 전기공학을 강전공학과 약전공학으로 나눌 때, 전자에 속하는 기계나 기구의 총칭이다. 이는 전기통신기구나 전자장치와 구별한다. 중요한 것은 중전기(重電機器)라고 하는 가전기(家電機器)나 전기

제어장치의 일부기기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전기용품(電氣用品)은 전기에 의하여 사용하는 여러 물품인데, 거의 대부분이 가전제품이다. 1974년 1월 4일자로 시행·공포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 전기용품의 제조와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전기용품은 주로 가정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용하므로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전기를 열원(熱源)·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기구라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전등·전기다리미·텔레비전·전기세탁기 따위의 일명 전기기구(電氣器具)는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레야 뗄 수 없는 생필품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생활이 진보할수록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양화될 전망이다.

그러하여 가전제품은 살아 숨쉬는 우리 생활인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러한 가족적이며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무정한 전기용품이 아닌 유정한 제품이어야 한다. 혼이 있고 자비심이 있는 유정(有情)의 전기용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미혹(迷惑)의 고해로부터 구제하여 불과(佛果)를 얻게 하는 일과 같이, 전기용품은 만인(萬人)을 위한 중생제도적이어야 함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